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http://www.motie.go.kr		

2017년 12월 20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 19(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7. 12. 19(화)	담당부서	국내대책과
담당과장		담 당 자	김민희 사무관(044-203-4147)

◆ 한·베 FTA 발효 3년차, 교역 확대로 상호 호혜적 결과 시현

- 한국의 베트남 수입시장 점유율 중국과의 격차 크게 감소(10.2%p→4.9%p)
-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 FTA가 경제협력의 토대 역할

1 한·베 FTA 발효 3년차, 교역 확대

□ **(교역)** 양국간 **교역**(585억불) 전년동기대비 **43% 증가**(수출 48.4%, 수입 22.3%)로 對세계 증가율(17.3%)을 크게 상회하고, **3년 연속 증가**하며 **상호 호혜적** 결과 시현

* 한국 교역 중 베트남의 비중 추이(%): ('15) 3.9(4위), ('16) 5.0(4위), ('17.11) 6.0(4위)

○ **(수출)** 베트남 **현지 투자진출기업*** **생산 품목**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중심으로 **수출**(437억불)이 **증가**하여, '17. 11월 기준 전년대비 **48.4% 증가**

* '17.上 약 5천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신규법인수 누계)

** '17.10월 기준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전자기구부품 등 4대 전자부품 수출이 46.7% 차지

- 특히, **전자분야 생산기지**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전환***되면서 **對베트남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크게 **상승**

* 對중국/베트남 수출 증감률(%): ('14) △0.4/6.0, ('15) △5.6/24.2, ('16) △9.3/17.5

⇒ **비혜택품목**인 **전자부품** 수출이 對베 **전체 수출**의 **46.7%**를 차지하는 관계로 **비혜택품목의 증가율**(56%)이 **혜택품목의 증가율**(26.5%)을 크게 **상회**

* 혜택품목의 비중은 22%이나, 향후 관세인하폭이 커질수록 기여도는 높아질 전망

- **한국의 베트남 수입시장 점유율**은 **22.3%**로 확대세를 지속하면서*, **점유율 1위**인 **중국**과의 **격차**를 크게 **감소**하는데 **기여**

* 한국의 베트남 시장 점유율 추이: ('15) 16.7% ('16) 18.4% ('17.10) **22.3%**

** '17.10월 기준 중국 점유율(27.2%)·일본(7.7%)의 베트남 시장 점유율은 소폭 축소

○ **(수입)**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역수입 품목 위주***로 **수입**이 **증가**하여, '17. 11월 기준 對베 **수입**은 **148억불**로 전년동기대비 **29.2% 증가**

* '17.10월 기준 5대 수입품목은 무선통신기기·의류·신변잡화·컴퓨터·평판 디스플레이 등이며 對베 수입의 54.9% 차지

⇒ **비혜택품목**인 **무선통신기기**(27.4%) 뿐만 아니라 **혜택품목**인 **의류**(14%)·**신변잡화**(25%) 등의 **수입**도 **증가**

* FTA 혜택품목의 비중이 전체 수입의 58.1%로 FTA가 수입 증가에 기여

- **베트남의 한국 시장 점유율***도 꾸준히 **상승**

* 베트남의 한국 시장 점유율(%): ('14) 1.5%(11위) → ('17.11) 3.4%(7위)

try of Trade,
try and Energy

< 한·베트남 품목별 교역 동향 (단위: 백만불, % / MTI 3단위)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16.10	'17.10	증감률(%)	품목명	'16.10	'17.10	증감률(%)
1	반도체	3,844	7,582	97.2	무선통신기기	2,617	3,334	27.4
2	평판DP	2,046	5,809	183.9	의류	2,139	2,438	14.0
3	무선통신기기	4,357	2,836	△34.9	신변잡화	527	659	25.0
4	기구부품	1,386	2,108	52.2	컴퓨터	458	471	2.8
5	석유제품	801	1,575	96.7	평판DP	32	424	1,206.2
	5대 품목 총계	12,434	19,910	60.1	5대 품목 총계	5,773	7,326	26.9
	전체 총계	26,425	39,279	48.6	전체 총계	10,366	13,333	28.6

* 음영은 FTA 혜택품목

○ **(무역수지)** 한국의 對베트남 **무역흑자 규모**도 **지속 확대***, 베트남은 '17. 11월 기준 **한국의 3위 무역흑자국**으로 순위 상승**

* 對베 무역수지(억불): ('14) 144, ('15) 180, ('16) 201, ('17.11) 289

** 수지 흑자국(억불): (1위) 중국(390), (2위) 홍콩(335), **(3위) 베트남(289)**, (4위) 미국(170)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7-12-19 11:10:21

2 베트남은 한국의 제3위 투자대상국으로 상생형 경제협력 파트너

□ **(투자) 한국**은 **건수·금액** 모두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으로, **한·베 FTA**가 양국간 실질적인 **경제 협력**의 **토대 역할**

* 베트남은 한국의 제3위 투자대상국으로 '16~'17.3Q 한국의 국가별 투자는 미국 289(33.6%), 중국 62(7.2%), 베트남 47(5.4%) 순임(억불, 신고금액기준)

○ 한·베 FTA를 통한 **수출과 투자의 선순환 유도***로 양국간 경제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 미친 것으로 평가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확대 등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 기반 마련 및 법인세 혜택 등 베트남內 우리 기업들의 경쟁조건 개선

【붙 임】 한·베 FTA 발효 3년차 주요 성과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 부서		담당 과장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국내대책과		김민희 사무관(044-203-4147)
	활용촉진과	박형민 과장(044-203-4150)	신영수 사무관(044-203-4151)
	투자유치과	김재준 과장044-203-4080)	류종민 사무관(044-203-4089)
	해외투자과	송현주 과장044-203-4090)	이영희 사무관(044-203-409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송남근 과장(044-201-1711)	이충녕 사무관(044-201-1721)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이경규 과장(044-200-5420)	신동호 사무관(044-200-5427)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	박희규 과장(042-481-3210)	채봉규 사무관(042-481-320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내대책과 김민희 사무관(☎ 044-203-41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한·베트남 FTA 발효 3년차 주요 성과

try of Trade,
try and Energy

2017. 12. 20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최근 對베트남 교역 동향

◇ '17년 11월 기준 양국간 **교역규모**는 **585억불**로 전년대비 **43% 증가, FTA 발효 후 3년 연속 증가세 시현**으로 **상호 호혜적** 결과

○ 對베 **수출**(437억불)은 **48.4% 증가, 수입**(148억불)은 **29.2% 증가**

1 對베트남 교역

□ **[교역]** '17. 11월 **對베 교역 증가율**(43.0%)는 **對세계 증가율**(17.3%) **상회**

- 한·베트남 교역규모는 '92년 한·베트남 국교수립 이래 90배 이상 성장, **'17년 베트남**은 **한국의 아세안 제1위 교역 대상국**

* '17.11월 한·베 교역액(585억불)은 한국의 총교역(9,596억불)의 6.0%로 **4위 교역 대상국**임
아세안 교역규모 순위(억불): ①베트남(585), ②싱가포르(184), ③인도네시아(165)

< 한·베트남 FTA 교역 동향 (단위: 억불, %, 관세청) >

	구 분	'14	'14.1~11	'15	'15.1~11	'16	'16.1~11	'17.1~11
교역	對베트남	304 (7.4)	276 (6.8)	376 (23.7)	346 (25.5)	451 (19.9)	409 (18.2)	**585** (43.0)
	對세계	10,982 (2.1)	10,048 (2.2)	9,633 (△12.3)	8,854 (△11.9)	9,016 (△6.4)	8,182 (△7.6)	9,596 (17.3)
수출	對베트남	224 (6.0)	202 (5.1)	278 (24.2)	256 (26.3)	326 (17.5)	294 (15.2)	**437** (48.4)
	對세계	5,727 (2.3)	5,232 (2.3)	5,268 (△8.0)	4,844 (△7.4)	4,954 (△5.9)	4,504 (△7.0)	5,248 (16.5)
수입	對베트남	80 (11.4)	73 (11.8)	98 (22.7)	90 (23.2)	125 (27.4)	115 (26.9)	**148** (29.2)
	對세계	5,255 (1.9)	4,816 (2.2)	4,365 (△16.9)	4,010 (△16.7)	4,062 (△6.9)	3,679 (△8.3)	4,348 (18.2)

*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15.7~'17.11월 對베 월별 수출 증감률 (단위: 억불, %) >



2 對베트남 수출

□ **[수출]** '17. 11월 **對베 수출**은 **437억불**로 전년동기대비 **48.4% 증가**

○ '17년 11월 기준 **對베트남 수출**(48.4%)은 **對세계 수출 증가**(16.5%) 및 **여타국* 수출 증가율**을 **상회**

* 對주요국 수출 증감률(연평균): 중국(14.1%), 일본(10.0%), 미국(4.2%)

- 한국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 확대로 **한국 조달 생산설비** 및 **원부자재 수출 증가**

○ 특히, **전자분야 생산기지**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전환***되면서 **對베트남 연평균 수출 증감률**은 **상승**

* 對중국/베트남 수출 증감률: ('14년) △0.4%/6.0%, ('15년) △5.6%/24.2%, ('16년) △9.3%/17.5%

< 반기별 한·베트남 수출 동향 (단위: 억불, %, 관세청) >

구 분	'15	'16. 上	'16. 下	'17. 上	'17. 3Q
對베 수출(A) (전년대비)	278 (24.2)	152 (10.7)	175 (24.2)	233 (53.5)	121 (45.0)
對세계 수출(B) (전년대비)	5,268 (△8.0)	2,412 (△10.2)	2,542 (△1.6)	2,791 (15.7)	1,510 (24.0)
비중(A/B)	5.3	6.3	6.9	8.3	8.0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 **(시장점유율)** '17년 **한국의 베트남 수입시장 점유율**은 **22.3%**로, **중국과의 격차**를 크게 **감소**(△5.3%p)하면서* **점유율 2위 유지**

* 베트남 수입시장에서 중국과의 점유율 격차: ('16년) 10.2%p → ('17.10) 4.9%p

- **경쟁국**인 중국·일본의 베트남 **시장 점유율**이 소폭 **축소**되고 있으나, **한국**의 **점유율**은 **확대세** 지속

< 국가별 베트남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

구 분	'12	'13	'14	'15	'16	'17.10
중국	25.3	28.0	29.6	29.9	28.6	27.2
한국	13.7	15.7	14.7	16.7	18.4	**22.3**
일본	10.2	8.8	8.7	8.7	8.6	7.7
대만	7.5	7.1	7.5	6.6	6.4	6.0

* 출처: 베트남 세관총국(KOTRA 자료 참고)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7-12-19 11:10:21

3 對베트남 수입

□ **[수입]** '17. 11월 **對베 수입**은 **148억불**로 전년동기대비 **29.2% 증가**

< 반기별 한·베트남 수입 동향 (단위: 억불, %, 무역협회) >

구 분	'15	'16. 上	'16. 下	'17. 上	'17. 3Q
· 對베 수입(A) (전년대비)	98 (22.7)	56 (38.0)	69 (19.9)	73 (28.9)	45 (29.4)
· 對세계 수입(B) (전년대비)	4,365 (△16.9)	1,931 (△13.1)	2,131 (△0.5)	2,342 (21.3)	1,207 (17.8)
비중(A/B)	2.2	2.9	3.2	3.1	3.7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 **(시장점유율)** '17년 **베트남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3.4%**로 지속 **상승**

* 베트남의 한국 시장 점유율(%): ('15) 2.2(8위), ('16) 3.1(8위), ('17.10) **3.4(7위)**

< 한국 수입시장에서의 주요 국가별 점유율(%) 추이 >

구 분	'12	'13	'14	'15	'16	'17.10
중국	15.5	16.1	17.1	20.7	21.4	20.4
일본	12.4	11.6	10.2	10.5	11.7	11.6
아세안	10.0	10.3	10.2	10.3	10.9	11.2
미국	8.3	8.1	8.6	10.1	10.6	10.7
베트남	1.1	1.4	1.5	2.2	3.1	**3.4**

* 한국무역협회 통계 기준

4 對베트남 무역수지

□ **[무역수지]** 한국의 對베 **무역흑자 규모**도 **지속 확대***되어, 베트남은 '17. 11월 기준 **한국의 3위 무역흑자국**으로 순위 상승**

* '83년 이후 지속 무역수지 흑자로 특히, '12년 이후부터는 100억불 이상의 흑자 기록

** '17.11월 기준 무역수지 흑자국(억불): (1위) 중국(390), (2위) 홍콩(335), **(3위) 베트남(289)**, (4위) 미국(170)

< 對베 무역수지 동향 (단위: 억불, 무역협회) >

구분	'13	'14	'15	'16	'17.11
對베트남	139	144	180	201	289
對세계	440	472	903	892	899

Ⅱ. 한·베트남 FTA 발효 후 주요 성과

◇ **수출**은 **베트남 현지 투자진출기업 생산 품목**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중심으로 **증가, 수입**은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역수입** 위주로 **증가**

○ **비혜택품목**인 **무선통신기기**(27.4%) 뿐만 아니라 **혜택품목**인 **의류**(14%)·**신변잡화**(25%) 등의 **수입**도 **증가**하여, **FTA**가 **수입 증가**에 **기여**

1 주요 품목별 수출입 성과

□ **[수출]** 현지 투자진출기업의 생산 관련 **부품·소재** 위주로,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무선통신기기·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 차지

○ 對베 **수출**의 **비중**이 **높은 전자부품*** 관련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비혜택품목의 증가율**(56%)이 **혜택품목의 증가율**(26.5%)을 크게 **상회**

* '17.10월 기준 상위 4대 수출품목 모두 전자부품 관련 품목으로 對베 수출의 46.7% 차지

try of Trade,
try and Energy

○ FTA 관련 **혜택품목**의 경우, **경질유·폴리프로필렌·알루미늄합금** 등이 **상위 수출 혜택품목**으로 전년동기대비 **26.5% 증가율**을 기록

- '17. 11월 기준 **혜택품목***의 **비중**은 **22%**이나, 향후 **관세인하폭**이 **커질수록 기여도**는 **높아질 전망**

* 수출 상위 10위 품목 중 전화기(8517), 부분품(8529), 전기회로의 기기(8536) 등의 하위(HS Code 8단위) 일부 품목만 관세인하

□ **[수입]**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역수입** 위주로,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무선통신기기·의류·신변잡화·평판디스플레이** 등이 차지

○ **무선통신기기·평판DP**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비혜택품목의 증가율**(51.2%)이 **혜택품목의 증가율**(16.2%)을 크게 **상회**

* 한국의 전자 기업들의 베트남 생산기지 확대로 현지 가공 후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자기기 물량 증가(무선통신기기 27.4%, 평판디스플레이 1,206.2% 수출액 증가)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7-12-19 11:10:21

○ FTA 관련 **혜택품목**의 경우, **텔레비전·의류** 등이 **상위 수입 혜택품목**으로 전년동기대비 **16.2% 증가율**을 기록

- '17. 11월 기준 **FTA 혜택품목***의 **비중**이 전체 수입의 **58.1%**로 **FTA**가 **수입 증가**에 **기여**

* 수입 상위 5위 품목 중 의류, 신변잡화 등이 관세인하로 '17. 10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각각 14.0%, 25.0% 수입 증가

< 한·베트남 품목별 교역 동향 (단위: 백만불, % / MTI 3단위)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16.10	'17.10	증감률(%)	품목명	'16.10	'17.10	증감률(%)
1	반도체	3,844	7,582	97.2	무선통신기기	2,617	3,334	27.4
2	평판DP	2,046	5,809	183.9	의류	2,139	2,438	14.0
3	무선통신기기	4,357	2,836	△34.9	신변잡화	527	659	25.0
4	기구부품	1,386	2,108	52.2	컴퓨터	458	471	2.8
5	석유제품	801	1,575	96.7	평판DP	32	424	1,206.2
	5대 품목 총계	12,434	19,910	60.1	5대 품목 총계	5,773	7,326	26.9
	전체 총계	26,425	39,279	48.6	전체 총계	10,366	13,333	28.6

* 음영은 FTA 혜택품목

2 FTA 수출활용률

□ **(FTA 수출활용률) 한·베트남 FTA의 수출활용률**은 **'17. 9월 기준 36.6%**로 발효 2년차('16년, 36.9%) 대비 **소폭 감소**(△0.3%p)

○ 한·베트남 FTA는 **한·아세안 FTA와의 선택적 활용, 위탁가공 수출**(관세유보) 등으로 인해 他FTA 대비 **수출활용률**이 **다소 낮음**

< 한·베트남 FTA 수출활용률(%) (출처: 관세청) >

구 분	'15	'16	'17.9
한·베트남 FTA	-	36.9	36.6
한·아세안 FTA*	42.5	52.3	46.3
전체 FTA	71.9	63.8	66.4

* 아세안은 베트남 제외(단, '15년은 베트남 포함)

3 투자 등

□ **[투자]** 한국의 對베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기반 마련**

○ **(韓→베)** '17. 3분기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제3위*** **투자대상국**임

* 1위 미국, 2위 중국(케이만군도·홍콩 등 우회투자국 제외)

- **한국**은 **건수** 및 **금액** 모두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

* 베트남 기획투자부 통계기준('17.上 누계), 한국은 투자건수 6,130건, 투자금액 545억불로 1위 / 2위 일본(462억불) / 3위 싱가포르(412억불) 순

** '17.上 현재 약 5천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대표적으로 삼성의 박닌·타이응엔성 공장(휴대폰), 사이공 하이테크파크(가전) / LG의 하이퐁 공장(가전·디스플레이·휴대폰 부품) / 두산중공업 / 한국전력공사 등)

- '17. 3분기 기준 해외 국가별 **신규 법인 수**에서 **베트남**(493개)이 **1위** 차지*

* 2위 중국(432개), 3위 미국(411개)으로 '16년까지 부동의 1위였던 중국을 넘어섬

<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 추이 (단위: 백만불, 건) >

구분		'13	'14	'15	'16	'17.3Q
對베트남	투자금액	1,476	2,150	2,920	2,993	1,688
	투자건수	1,109	1,366	1,702	2,137	1,712
對세계	투자금액	36,330	35,876	41,487	49,240	36,691
	투자건수	9,414	9,583	10,272	10,765	8,550

* 자료: 수출입은행(신고금액, 신고건수 기준)

○ **(베→韓)** 베트남의 對韓 투자는 총 141건, 총 26.4백만불('97~'17.3Q 누계, 신고기준)로 건수나 금액면에서 **미미**한 수준

* 베트남의 對한 투자추이(백만불): ('13) 2.1 ('14) 0.9 ('15) 0.4 ('16) 6.9

□ **[기타]** 한·베 FTA를 통한 **수출과 투자의 선순환 유도**로 양국간 경제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 미친 것으로 평가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확대 기반 마련**

* 삼성·LG·CJ·롯데·포스코·금호·효성·두중 등 대기업과 계열사, 협력업체 동반진출

○ 베트남 시장내 **우리 기업들의 경쟁조건 개선*** 등

* 베트남의 메콩델타 지역 산업육성 및 양국 산업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베 인큐베이터파크를 '15.11월 개소하여, 입주기업 법인세 혜택 적용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7-12-19 11:1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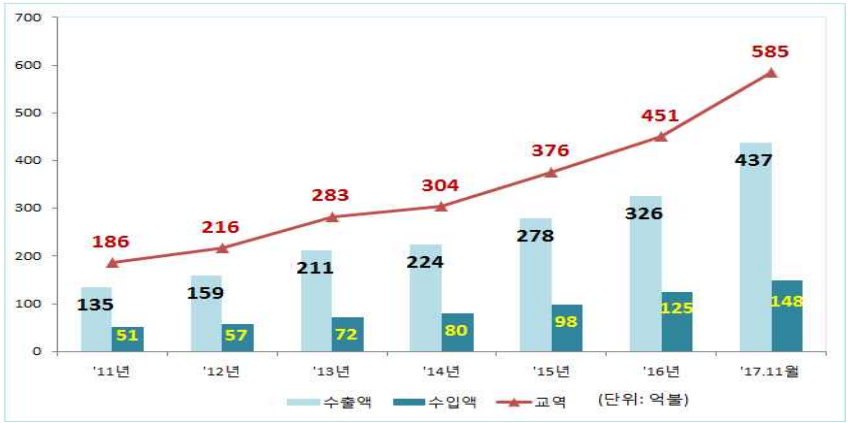
참고 1 한 · 베트남 교역 현황

□ 연도별 교역 현황

< 한 · 베트남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백만불, 전년대비 %) >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11
교역	對베트남	12,983 (36.4)	18,549 (42.9)	21,665 (16.8)	28,263 (30.5)	30,342 (7.4)	37,576 (23.8)	45,125 (20.1)	58,502 (43.0)
	對세계	891,596 (29.9)	1,079,627 (21.1)	1,067,454 (△1.1)	1,075,218 (0.7)	1,098,180 (2.1)	963,256 (△12.3)	901,619 (△6.4)	959,606 (17.3)
수출	對베트남	9,652 (35.0)	13,465 (39.5)	15,946 (18.4)	21,088 (32.2)	22,352 (6.0)	27,771 (24.2)	32,630 (17.5)	43,683 (48.4)
	對세계	466,384 (28.3)	555,214 (19.0)	547,870 (△1.3)	559,632 (2.1)	572,665 (2.3)	526,757 (△8.0)	495,426 (△5.9)	524,797 (16.5)
수입	對베트남	3,331 (40.5)	5,084 (52.6)	5,719 (12.5)	7,175 (25.5)	7,990 (11.4)	9,805 (22.7)	12,495 (27.4)	14,819 (29.2)
	對세계	425,212 (31.6)	524,413 (23.3)	519,584 (△0.9)	515,586 (△0.8)	525,515 (1.9)	436,499 (△16.9)	406,193 (△6.9)	434,808 (18.2)
수지	對베트남	6,321	8,381	10,227	13,913	14,362	17,966	20,135	28,864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자료: 한국무역협회



참고 2 對베트남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입 동향

□ 對베트남 상위 10개 품목 수출 동향 (단위: 백만불, %)

구 분	'13	'14	'15	'16	'17.10
반도체	2,901 (35.1)	2,789 (△3.9)	2,871 (2.9)	4,574 (59.3)	7,582 (97.2)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691 (64.0)	688 (△59.3)	1,268 (84.2)	2,514 (98.3)	5,809 (183.9)
무선통신기기	1,566 (83.0)	2,271 (45.0)	4,249 (87.1)	5,192 (22.2)	2,836 (△34.9)
기구부품	906 (71.4)	898 (△0.9)	1,188 (32.3)	1,657 (39.5)	2,108 (52.2)
석유제품	787 (△32.7)	600 (△23.7)	328 (△45.3)	1,093 (232.8)	1,575 (96.7)
기타기계류	386 (60.9)	456 (18.2)	670 (46.7)	594 (△11.3)	1,252 (175.1)
평판DP 제조용 장비	12 (518.9)	9 (△29.4)	127 (1,347.1)	125 (△1.7)	1,225 (1410.7)
합성수지	1,136 (28.7)	1,188 (4.6)	1,110 (△6.5)	1,203 (8.4)	1,185 (20.4)
플라스틱 제품	346 (42.6)	453 (30.7)	663 (46.5)	744 (12.2)	948 (53.2)
편직물	942 (15.1)	978 (3.9)	977 (△0.1)	1,077 (10.3)	901 (3.8)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 對베트남 상위 10개 품목 수입 동향 (단위: 백만불, %)

구분	'13	'14	'15	'16	'17.10
무선통신기기	188 (92.8)	292 (55.6)	1,471 (403.4)	3,145 (113.9)	3,334 (27.4)
의류	1,694 (55.2)	2,180 (28.7)	2,241 (2.8)	2,449 (9.3)	2,438 (14.0)
신변잡화	383 (24.6)	514 (34.4)	538 (4.7)	642 (19.2)	659 (25.0)
컴퓨터	72 (18.5)	174 (141.8)	400 (130.1)	552 (38.0)	471 (2.8)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26 (138.5)	203 (△10.1)	132 (△35.1)	56 (△57.4)	424 (1206.2)
목재류	232 (32.4)	350 (51.2)	348 (△0.7)	428 (23.1)	413 (19.7)
기구부품	37 (11.2)	61 (66.8)	197 (220.9)	261 (32.6)	349 (67.9)
영상기기	63 (2504.9)	83 (31.9)	150 (80.7)	340 (126.7)	339 (20.9)
반도체	124 (19.8)	127 (2.6)4	111 (△12.4)	123 (10.5)	309 (196.3)
산업용 전기기기	107 (33.4)	151 (41.1)	223 (47.4)	287 (28.8)	261 (11.8)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7-12-19 11:10:21

참고 3 對베트남 농축산물 교역

1 교역 동향

□ FTA 이행 3년차('17년)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 **수입**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각각 11.0%, 55.5% 증가**

< 한 · 베 FTA 발효 전·후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단위: 백만불, %) >

구 분	발효 전						발효 후				증감률('17년)			
	'13		'14		'15		'16		'17		발효 전 평년 대비		'16년 대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 농산물	140	332	156	395	197	332	219	329	249	437	75.4	26.6	14.0	32.8
- 곡물	4	50	7	76	10	35	11	33	5	57	△17.9	19.6	△55.1	71.4
- 과일·채소	6	45	7	76	7	97	11	127	19	138	230.7	166.8	68.4	8.8
- 가공식품	131	237	142	243	180	200	196	168	225	242	72.7	0.6	14.7	43.4
· 축산물	50	9	56	12	66	18	58	16	28	24	△42.7	152.6	△51.4	47.8
· 임산물	112	255	95	362	45	386	53	448	34	522	△50.9	94.8	△36.7	16.4
전 체	303	597	307	770	309	735	329	794	311	983	**11.0**	**55.5**	△5.6	23.9

자료: 1) 연도별 수출입 자료는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치
2) 발효 전 평년은 직전 5개년('11~'15년)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뺀 3개년 평균
3) 과일·채소는 과일신선, 과일가공, 채소의 합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축산물 관련 3,068개 HS코드 기준)

2 FTA 발효 3년차 수출입 동향

□ **[수출]**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은 발효 전 평년 대비 **11.0% 증가**

○ **과일**(배2267.5%, 포도1597.7%, 딸기11928.3%)·**가공식품**(라면332.0%, 과당14.0%, 홍삼조제품106.1%) **수출**이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증가

□ **[수입]**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입**은 발효 전 평년 대비 **55.5% 증가**

○ **과일·채소 수입**은 캐슈넛(가공, 1638%), 당근(152.1%), 오이(168.6%) 등의 수입 증가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66.8% 증가**

○ **곡물 수입**은 밀(747.8%), 기타식물성유박(1880.6%), 완두(373.2%) 등의 수입 증가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9.6% 증가**

* 베産 곡물의 경우 발효전 수입이 없거나 극히 소량이라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참고 4 對베트남 수산물 교역

1 교역 동향

□ FTA 이행 3년차('17년) 對베트남 수산물 **수출**, **수입**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각각 **53.6%, 40.4% 증가**

< 한 · 베 FTA 발효 전·후 對베트남 수산물 수출입 동향(단위: 백만불, %) >

구분	발효 전						발효 후				증감률('17년)			
	'13		'14		'15		'16		'17		발효 전 평년 대비		'16년 대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 어류	27	131	27	133	45	128	39	130	43	137	53.2	5.0	10.7	6.3
- 갑각류	2	136	1	234	1	203	3	224	3	271	131.9	74.8	3.7	21.4
- 패류	0.1	13	0.4	13	0.3	12	2	19	1	2	252.8	△89.3	△66.4	△91.7
- 연체동물	13	95	16	125	6	122	11	114	5	175	△30.6	51.9	△50.5	54.3
- 기타수생동물	0.0	0.2	1	1	1	0.3	2	0.4	1	2	3.3	1,227.6	△78.4	385.7
- 해조류	1	0.2	3	0.1	4	0.0	5	0.0	7	0.1	309.3	△57.4	47.7	128.7
- 수산가공품	9	5	13	5	13	8	15	5	21	5	108.4	△13.5	42.1	△5.5
- 소금	1	0.4	1	0.2	1	0.3	1	0.1	1	0.1	79.2	△83.2	35.5	△21.6
- 기타	0.0	0.0	0.0	0.0	0.1	0.2	0.0	0.3	0.0	0.3	21.2	136.4	22.4	△21.0
전 체	53	381	61	510	70	472	77	491	82	593	**53.6**	**40.4**	6.7	20.7

자료: 1) 연도별 수출입 자료는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치
2) 발효 전 평년은 직전 5개년('11~'15년)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뺀 3개년 평균
3)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물 관련 630개 HS코드 기준)

2 FTA 발효 3년차 수출입 동향

□ **[수출]** '17년 對베트남 수산물 **수출**은 발효 전 평년 대비 **53.6% 증가**

○ 국내 생산이 호조를 보인 **황다랑어**(80.0%), 베트남 수요가 확대된 **김**(291.3%), 이 밖에 **새치**(104.8), **명태**(61.4%) 등이 **전체 수출 견인**

□ **[수입]** '17년 對베트남 수산물 **수입**은 발효 전 평년 대비 **40.4% 증가**

○ 수입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 확대로 **새우**(75.3%), **주꾸미**(45.3%), **쥐치**(10.8%), **낙지**(78.9%)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수입 증가**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7-12-19 11:10:21